

저널리즘과 신뢰

게이트키퍼의 시대는 가고 맥락 짚는 주석자의 시대로

이유미 /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연수팀 사원



관련 기사 보기

“한국 언론은 재벌, 정치인과 엄청 가까워요. (장충기) 문자 사건으로 우린 다 알게 됐어요.”

“한국 언론은 익명에 기댄 보도가 많아요. 김 모 씨 인용 보도도 많죠. 문제는 한국에 김 모 씨가 너무 많다는 점이에요.”

2018 KPF 저널리즘 컨퍼런스의 신뢰 세션에서 두 번째 연사로 나선 독일 언론인 안톤 솔츠(Anton Scholz) ARD 기자의 말이다. 그는 한국 언론이 신뢰를 잃은 원인으로 정치인·재벌과 가깝다는 점, 정확한 뉴스보다 빠른 뉴스를 중시하는 점 그리고 익명에 기댄 보도가 많다는 점 등을 지적



독인 언론인 안톤 솔츠 ARD 기자는 한국 언론이 신뢰를 잃은 고질적인 원인을 지적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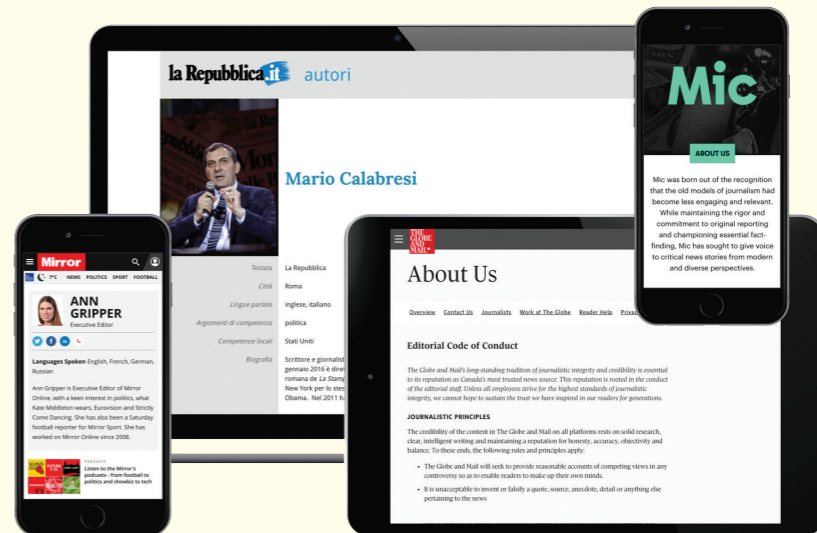
했다. 파란 눈의 외국인 입에서 나오는 수려한 한국어와 재치 있는 입담에 좌중은 웃음을 터뜨려 가며 큰 호응을 보냈다. 한국 언론을 바라보는 제3자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 언론의 장점에 대해서도 말해달라는 질문이 나오자 다시 한 번 좌중에서 큰 웃음이 터져나왔다. 솔츠 기자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다. 그는 한국 언론의 역사를 되짚으며, 독립과 민주화의 주요 고비마다 한국 언론이 해온 역할을 상기했다. “한국 저널리즘의 역사를 보면 좋은 기자들이 많았어요. 고문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한 기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한국 민주주의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정신을 이어나가리라 믿습니다”라며 과거 신뢰 수준의 회복을 위해 한국 언론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 자유 위해 노력한 기자 많아

언론의 신뢰 회복 문제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공저자인 톰 로젠스틸(Thomas Rosenstiel) 미국언론연구원

트러스트 프로젝트 신뢰 지표 준수 모습. 윤리강령이나 기자의 전문 영역, 인용 출처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출처-<https://thetrustproject.org>>



(API·American Press Institute) 원장은 안톤 솔츠 기자에 앞서 가진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가짜뉴스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이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뉴스 앞에 ‘가짜’란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뉴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뉴스미디어 관계자를 엘리트 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대중과 이간질하고 있다고 했다. 로젠스틸 원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수사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믿게끔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뉴스에 의심을 품도록 해서 사실을 믿는 대신 신념과 리더를 믿게끔 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짜뉴스 문제는 언론계에 심각한 존재론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다. 사실보다 신념을 더 믿는 대중에게 어떻게 ‘사실’을 와닿게 하는 보도를 할 것인가. 저널리스트를 적으로 매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로젠스틸 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널리즘의 핵심 원칙은 유효하며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들은 애초부터 기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한 뉴스를 원하는 공중의 필요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다만,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저널리스트들의 접근방법 또한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실’에 도달하는 방법의 변화다. 그에 따르면, 저널리스트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걸러 보여주는 게이트키퍼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미 들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주석자(annotator)’로서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빠진 맥락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저널리스트의 주요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실을 입증하는 저널리스트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다. ‘나를 믿어라(Trust me)’ 시대에서

Trust Indicators	
• Best Practices	• Methodology
• Author/Reporter Expertise	• Local
• Type of Work	• Diverse Voices
• Citations & References	• Public Engagement

트러스트 프로젝트 신뢰 지표. <출처-<https://thetrustproject.org>>

‘내게 보여달라(Show me)’ 시대로 옮겨간 지금, 저널리스트들은 독자에게 왜 자신들의 보도를 믿어야 하며 또 어떻게 취재했는지 보여주어야 신뢰를 얻는다고 했다. 미디어 종사자들을 향한 그의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외에도 로젠스틸 원장은 진실 보도를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첫째, 저널리스트는 언제나 차분하고 프로다워야 한다. ‘우리는 일을 하는 중이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We’re at work, not at war)’라는 마틴 배런(Martin Baron) 워싱턴포스트 편집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분법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삼갈 것을 주문했다. 둘째, 뉴스 콘텐츠를 다르게 생산해보는 것이다. 독자의 궁금증을 예측해보고 미리 답해보거나, 비주얼 스토리텔링과 인터랙티브 뉴스 등을 시도해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뉴스를 협업의 산물로 봐야 한다. 기술과 독자는 뉴스의 협력자이지 라이벌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오늘날 미디어 업계가 겪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함께 돌파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널리스트의 책임 더욱 중요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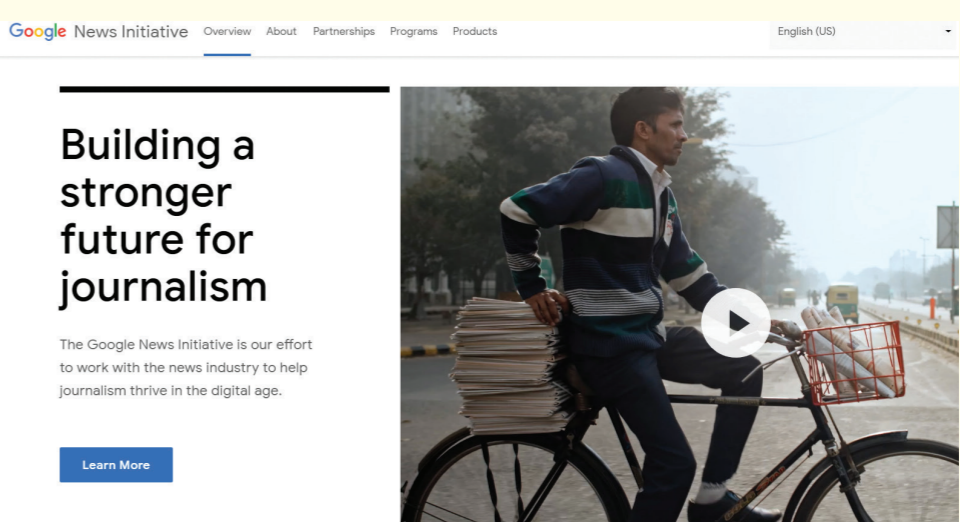
뒤이어 발표한 마크 페이튼(Mark Payton) 헤이마켓



아이린 제이 리우 구글 뉴스랩 아시아태평양지역 팀장은 세계 뉴스 생태계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해온 구글의 노력을 설명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리스트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걸러 보여주는 게이트키퍼가 아냐...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저널리스트들의 접근방법 또한 크게 바뀌어야 한다.”

미디어 그룹 디지털 편집국장과 아이린 제이 리우(Irene Jay Liu)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 뉴스랩장은 로젠스틸 원장의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페이튼 국장은 2016년 결성된 트러스트 프로젝트 뉴스리더십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헤이마켓 웹사이트에 트러스트 프로젝트 지표를 도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산타클라라대학의 샬리 레흐만(Sally Lehrman) 교수가 진두지휘하는 트러스트 프로젝트는 미디어의 신뢰 회복 목적에서 투명성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산업 간 이니셔티브로서 현재 언론사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과도 협업 중이다. 총 8개의 신뢰 지표를 지정해 이를 잘 준수한 경우 트러스트 로고 사용을 허가해주며, 특히 구글 뉴스 검색 결과에서 상단에 배치되도록 알고리즘을 통해 우대하고 있다. 뉴스 생산의 목적이 독자에게 많이 읽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러스트 프로젝트와 플랫폼 기업의 협업은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좋은 기사를 생산하는 큰 유인이 되고 있다. 독자 또한 트러스트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GNI) 홈페이지. <출처-구글 뉴스 캡처>

보이고 있다. 최근 트러스트 프로젝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독자가 62.6%로 나타나기도 했다. 플랫폼 기업 또한 뉴스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리우 구글 뉴스랩 팀장은 트러스트 프로젝트를 포함해 세계 뉴스 생태계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해온 프로젝트들을 소개했다. 리우 팀장은 “구글은 본질적으로 검색엔진이지 절대적 진실의 신탁이 아니라는 대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그럼에도 구글은 민주사회에서 뉴스 콘텐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뉴스 콘텐츠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이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 융성에 일조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GNI, Google News Initiative)를 발표하기도 한 구글은 GNI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1. 퀄리티 저널리즘 강화
- 2. 언론사의 지속성장을 돕는 비즈니스 모델 진화
- 3. 기술 혁신을 통한 언론사의 역량 강화.

이를 위해 구글은 특히 뉴스 속보에서 오보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보 특성상 빠른 정보 전파가 가능하기에 악용될 소지가 많고 그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한층 권위 있고 검증받은 콘텐츠가 상위에 랭크되도록 구글 시스템을 훈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사, 로컬미디어협회(Local Media Association) 등과도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언론의 위상과 신뢰는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지만 이번 컨퍼런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 그 핵심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한 업계 내부의 논의와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뜨겁다. 혼란한 과도기 속에서도 저널리즘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핵심 원칙만 굳건히 지켜낸다면 언론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언론의 위기는 민주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금의 언론 상황은 대중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독자들도 깨달아야 한다. 신뢰 회복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일 수 있도록 독자들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 업계의 노력에 이제는 독자들도 화답할 차례다. 📰